

두 눈 부릅뜨고 농정감시 활동 펴야

지금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은 수입개방이라는 거대한 폭풍우에 의해 사활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7천만 겨레의 생명줄인 우리 농업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기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생산현장에 임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삼가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

우리 농업은 과거에는 공업화·도시화 속에서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UR과 WTO 속에서 공산품 수출을 위한 댓가로 농산물 수입자유화라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날의 농정은 농민의 자율적인 영농에 근거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하향식으로 주도되어 왔기에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고, 농어민의 불신만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지난 6월 농발위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비록 농어민의 바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농어민의 이해에 근거하는 농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이후 정부에 의해 농발위안조차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농민단체들은 이제 농정을 이대로 정부에 맡겨둘 수 만은 없다는 인식의 공감대 위에서 「전국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전국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는 농정개혁 실현의 담당할 주체가 되려는 전국 6백만 농어민의 뜻을 각 농민단체들이 하나로 모아 발족하는 보다 강력한 농민단체 연대기구인 것이다.

이제는 농어민 스스로의 힘으로 농정개혁 실현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따라서 우리 농업의 장래를 위해 커다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UR 국회비준, 추곡수매, 한해 및 수해보상, 농안법·농지법·협동조합법 등 주요 현안이 걸려 있는 올 하반기의 농정개혁 실현 및 정기국회 대응에 농정감시회의를 중심으로 농민단체가 공동대응을 힘있게 전개할 경우 각종 개혁입법을 성취할 수 있으며, 기대에 못 미치는 정부의 농정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견인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단체간의 강력한 연대는 이미 9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농민단체간의 연대 및 공동대응이 발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욱 공고한 농민단체간 연대 속에서 농민단체 연합조직의 건설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중요한 단계이다. 농업의 생존이 걸린 UR국회비준 연기와 농정개혁의 실현은 우리의 굳건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관철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며, 그 진정한 의미도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농어업의 주체인 우리들이 수입개방이라는 거대한 시련 앞에 절망과 패배감으로 무너진



박 덕 영

(전국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 상임대표)

□ 필자 약력

- 농어민후계자 선정(축산)
- (사)한국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 연합회장 및 (사)한국농어민신문사 충청북도 지사장
- (사)한국농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장(現)
-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現)
- 전국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 상임대표(現)

다면, 농민단체 연대기구도 단지 하나의 내용없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결연한 개혁의지가 절실하다. 생산현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지켜내고, 생산 뿐 만 아닌 저장·가공·유통도 농민의 몫이라는 개혁의지가 충만할 때 농정감시회의는 그 의지를 하나로 모아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는 여러가지 적극적인 농정개혁 활동을 펴나갈 것이다. 우선 지금 시작되고 있는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농업관련 법률안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27개 법률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는 것은 강력이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될 법률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주요 농민단체들의 국정감사 관련 요구사항 목록을 토대로 전국적인 조사를 거쳐 최종목록을 작성, 이를 국정감사에 관철시키기 위한 연대활동과 우리농업 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UR비준안 연기 및 수정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UR비준안 통과는 우리 스스로의 강력한 힘에 의해 적극 저지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전체 농어민의 회관 건립을 통해 각종 행사에 농어민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개별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민의 날 행사를 지속적인 농민단체간 결속을 통해 농정감시회의가 주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농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동 감시반을 설치, 운영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과제들은 모든 농어민들이 지켜보기만해서는 결코 수행될 수 없다. 농어민 여러분이 생산현장에서부터 두 눈을 부릅뜨고 농정감시 및 개혁활동을 생활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농정감시 및 개혁의 의지는 각 농민단체로 하나가 되어 농민단체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며, 나아가 농정감시회의도 각 농민단체의 개혁의지를 하나로 모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역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의 몫이기에 농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600만 농민의 무한한 힘과 의지에 커다란 기대를 걸어보며, 농정감시회의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질타를 부탁드립니다. **정승**